환일소식

은 행 나 무

겨울방학호

·발행인 : 이정철
·발행처 : 환일고등학교
·주 소 : 서울시 중구 환일길 47

http://www.hwanil.hs.kr

2025년 12월 30일 화요일

환일! 웃음과 도전으로 채운 우리의 1년!

후배들의 힘찬 수능 응원

수능 만점자 선배와 함께

축구 학생대표

눈 내린 환일 교정 위에 지난 1년의 시간이 고요히 쌓였다. 입학의 설렘 속에서 시작된 학교생활은 선배들의 따뜻한 환영으로 첫발을 내디뎠다. 낯설었던 하루하루는 점차 웃음과 추억으로 채워졌다. 수능 만점의 신화를 이룬 박창희 선배님과의 만남은 후배들에게 꿈을 향한 희망을 주기에 충분했다. 경험에서 나온 조언은 말보다 큰 울림으로 남았다. 축구 학생대표팀의 모습에서는 협력과 도전의 가치를 배웠다. 승패를 넘어 서로를 응원하는 모습 속에서 공동체의 힘을 느낄 수 있었다. 2025년 교실과 운동장, 그리고 교정 곳곳에서 우리는 함께 성장했다. 웃음과 도전으로 채운 이 시간은 우리를 한층 단단하게 만들었다. 이 소중한 1년은 앞으로 나아갈 우리의 발걸음을 힘차게 비출 것이다.

온누리에 성탄의 기쁨을...

1면–12면 주요내용 소개

1면 메인사진 | 성탄절
2면 교장님 글
3면 개교 78주년을 기념하며
4–9면 학교소식
10–11면 소감문
12면 수상 및 성탄메시지

교장님 글

큰 꿈과 비전을 준비하는 방학생활

환일고 교장 이정철

사랑하는 환일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방학을 맞이하며 잠시 멈춰 서지만, 이 시간은 단순한 쉼이 아니라 여러분의 큰 꿈과 비전을 준비하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변화의 속도가 너무나 빠릅니다.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시대일수록, 자신의 꿈을 구체적으로 그려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방학만큼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나의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

꿈은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읽고, 보고, 경험하고, 도전할 때 비로소 자랍니다. 방학 동안 책 한 권을 깊이 읽어도 좋고, 관심 있는 분야의 프로젝트를 시도해 보아도 좋습니다.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작은 시작이 결국 여러분의 비전이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한 마음과 몸을 가꾸는 것입니다.** 충분히 쉬고, 가족과 대화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여유를 가지기 바랍니다. 쉼은 꿈을 향한 준비의 일부입니다.

학생 여러분, 환일인의 꿈은 언제나 높은 이상 속에서 이루어졌고, 우리 학교가 가진 '경천 · 애국 · 애인'의 정신은 여러분이 앞으로 걸어갈 길에 든든한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이번 방학이 여러분 각자의 비전을 다지는 특별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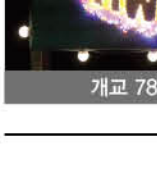
방학 동안 안전에 유의하며, 새로운 마음으로 더 성장한 모습으로 개학식에서 다시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선배가 들려주는 겨울방학 학습 방법

겨울에 쌓아올리는 실력의 초석

3학년 김주한



겨울방학은 학습 방향을 안정적으로 잡고 기초를 확실하게 다질 수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이후 학습 속도와 성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탐구 과목 두 개를 빠르게 결정하는 것입니다. 탐구 선택이 늦어지면 개념 학습과 문제 풀이가 모두 지연되기 때문에, 겨울방학 초반에 확실히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선택을 마쳤다면 즉시 개념 학습을 시작해야 하며, 개념을 배우는 과정에서는 인강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국어 영역에서는 화법과 작문을 선택할지, 언어와 매체를 선택할지를 겨울방학 동안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언매의 경우, 표준점수에서 이점이 생길 가능성이 비교적 크기 때문에 방학 동안 언매를 시도해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실제 문제를 풀어보며 자신의 적성에 맞는지 확인해본 뒤 결정하면 됩니다. 언매가 지나치게 어렵게 느껴진다면 화작으로 변경해도 늦지 않습니다. 화작은 난이도가 비교적 안정적이고, 개념량이 많지 않아 학기 중에 시작해도 충분히 대비가 가능합니다. 다만 어떤 선택이든 겨울방학 안에 결정하는 것이 후반 학습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수학은 자신의 현재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초 개념이 부족함에도 고난도 문제만 반복하는 방식은 학습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기본 개념부터 흔들린다고 느낀다면 자존심을 내려놓고 인강 강사들의 중학교 수학 특강이나 기초 개념 강의를 먼저 듣는 것을 추천합니다. 중등 개념을 다시 잡는 데 걸리는 시간은 길지 않지만, 이 단계가 제대로 잡히지 않으면 이후 전 범위에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개념이 탄탄한 학생이라면 겨울방학 동안 전 범위를 한 번 정리하며 유형별 문제 풀이로 기본기를 강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어 역시 본인의 실력을 정확히 평가해야 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영어에 불안감을 느껴 시간을 과도하게 투자하지만, 실제로 영어 실력은 생각보다 빨리 떨어지지 않습니다. 문법이나 독해 기초가 어느 정도 되어 있다면 겨울방학에 영어를 장시간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 한 시간 정도 투자하여 단어 학습과 문제 풀이를 꾸준히 이어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 정도의 루틴만 유지해도 감을 잃지 않고 안정적으로 실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체 영역에 대해 1~2주에 한 번 정도는 전범위 모의고사를 치르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현재 실력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전 감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고3 수험생활은 정말 긴 여정입니다. 겨울방학 동안 계획을 잘 짜서 너무 지치지 않도록 컨디션 관리를 잘 해주며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후회 없이 열심히 준비하셔서 꼭 좋은 결과 얻기를 바랍니다.

27 수능을 응원하며

3학년 박재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자율적인 공부 계획에 있어 이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형태를 감히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미적분과 과학탐구의 경우, N수생 수의 증가, '확통런' 및 '사탐런'의 영향, 마지막 시험이라는 특성 때문에 어떤 문제가 어떤식으로 시험 당일에 나타날지 모릅니다.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겨울방학부터 수능을 위한 대비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국어 과목의 공통 영역인 문학과 독서는 기출 학습이 정말 중요합니다. 차분하게 한문장 한문장 읽고 이해하는 연습을 역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기출 문항과 같은 양질의 자료로 학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가원 기출을 모두 학습하였다면, 교육청이나 LEET 언어이해 기출 문항을 공부하는 것 또한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국어의 경우, 주변의 말에 현혹되지 않고 중심을 지키는 공부를 하기 바랍니다.

수학 영역의 경우, 특히 미적분을 고르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겨울방학동안 모든 고난도 기출문항과 적어도 'N제' 한권 정도를 끝내시면 좋습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N수생 수의 증가, 선택과목으로서 '미적분'을 응시할 수 있는 마지막 수능이라는 특수함, 미적분이라는 과목 자체의 기본 난이도, 분량 등을 고려할 때, 정말 많은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확률과 통계는 문항 자체는 미적분에 비해 평이할 수 있으나, 시험 현장에서 마주하는 난이도는 미적분 못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확률과 통계를 응시한다면, 실수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경우의 수를 따지는 연습, 현장에서 선택과목을 여러번 풀어볼 수 있도록 공통 과목을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연습이 필수적입니다.

탐구 과목 선택에 있어, 특히 과학탐구를 희망한다면, 본인이 정말 자신이 있는지의 여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지를 보고 든 생각, 2학년때 해당 과목에서의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과학탐구의 기출문제 학습이 현재 충분히 되어 있지 않다면, 고득점을 위해 상당한 시간 투자가 요구될 것입니다. 본인이 해당 과목의 기출문제 학습이 완료된 상태이더라도, 좋은 결실을 얻기 위해선 N제나 실전모의고사와 같은 고난도 사설 문항, EBS 수능특강 및 수능완성의 지엽적인 부분 또한 학습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3학년 학생이 내신 시험에서 상대평가로 치게 될 시험은 영어 독해와 작문,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등이 있으며, 이과라면 미적분이 추가될 것입니다. 이때 미적분은 수능 공부와 함께 가져갈 수 있으나, 국어 선택과목 및 영어는 추가적인 학습이 필요할 것입니다. 평소 실력이 매우 좋은 학생도 수능 당일에는 어떤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개인적인 선택과 집중을 해야하지만, 가급적이면 학교 시험을 성실하게 대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끝으로, 너무 스스로를 압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번아웃, 슬럼프를 극복하는 방법을 알면 좋지만, 가장 좋은 건 그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위해,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라도, 너무 스스로를 압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 감사합니다. 2027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응시할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부디 좋은 결과 있기를, 그리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개교 78주년 기념 작품

개교 78주년 기념 작품

성탄절 트리

성탄절 장식

개교 78주년을 기념하며

개교 78주년 기념식

환일중 · 고등학교는 개교 78주년을 맞아 지난 9월 25일 교내 강당에서 개교기념 예배 및 기념식을 거행했다. 전교생과 교직원,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행사는 환일의 역사와 교육 이념을 되새기는 뜻깊은 자리였다. 기념식은 예배로 시작되어 영상 회고를 통해 학교 설립의 정신과 초창기 교육 철학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교가 제창과 합창부의 기념공연이 이어지며 행사장의 분위기를 엄숙하면서도 장중하게 이끌었다. 이후 진행된 기념식에서는 학교 발전에 기여한 교직원과 학생들에 대한 표창 수여가 이루어졌다. 수상자들은 환일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책임과 자긍심을 다시금 되새기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번 개교기념 예배 및 기념식은 지난 78년간 이어져 온 환일의 교육적 가치와 전통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도약을 다짐하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마무리되었다.

2학년 나재승 기자

운화상 최진성 선생님

개교기념식

자랑스런 환일인상

4중창 공연

1학년 박주한 학생 공연

수상 학생들과 선생님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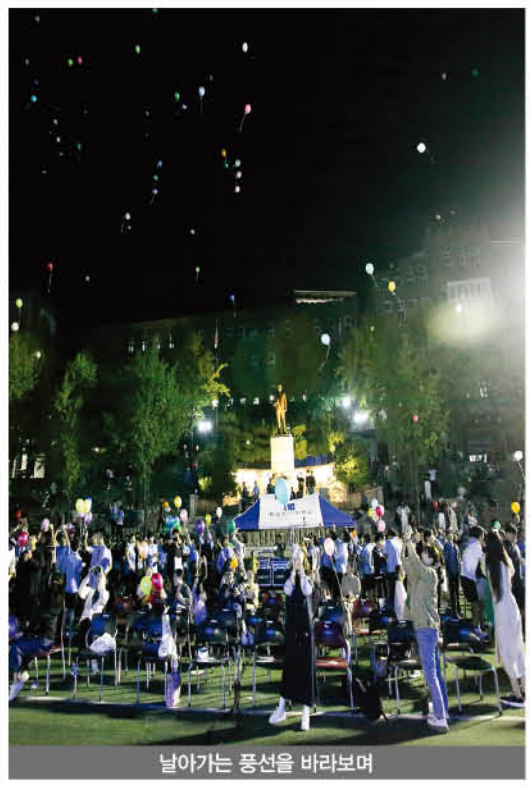
합창단의 환일찬가

가을밤 열린 음악회

환일중 · 고등학교는 개교 78주년을 맞아 지난 9월 25일, 교내에서 '가을밤 열린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번 음악회는 학생 · 학부모 · 지역주민이 함께한 축제의 장으로, 1부와 2부로 나뉘어 다채로운 공연이 이어졌다. 1부에서는 기도와 인사말을 시작으로 피아노 독주, 현악 4중주, 색소폰 4중주, 혼성 4중창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밝고 경쾌한 곡부터 서정적인 선율까지 다양한 연주가 교정을 채우며, 관객들은 자연스럽게 음악에 몰입했다. 이어진 2부에서는 독창과 클라리넷 듀엣, 두왑사운즈의 감미로운 무대, 전자 현악 4중주 Trinity의 에너지 넘치는 연주가 이어져 분위기는 더욱 깊어졌다. 음악회의 절정은 피날레였다. 다함께 '환일 찬가' 합창을 부르며 하나의 목소리로 학교의 역사를 기념했고, 모두가 밤하늘로 풍선을 날리는 장면이 펼쳐졌다. 환한 조명 아래 다양한 색의 풍선이 떠오르자, 교정에는 잔잔한 감동과 축복의 마음이 퍼져나갔다. 그리고 음악회의 진정한 하이라이트인 폭죽놀이가 시작됐다. 첫 불꽃이 터지는 순간 교정은 탄성과 환호로 가득 찼고, 화려한 불빛이 교정과 하늘을 밝히며 78주년의 의미를 더욱 빛냈다. 눈부신 불꽃 아래 모두가 하나가 되었고, 올가을 밤은 환일의 역사 속에 또 하나의 잊지 못할 기억으로 깊이 새겨졌다. 가을밤을 수놓은 이번 음악회는 학교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낸 아름다운 순간이자, 환일의 지난 78년과 앞으로의 새로운 발걸음을 함께 축복하는 시간이었다.

2학년 서정훈 기자

행사 전경


날아가는 풍선을 바라보며

다함께 피날레

1학년 김민재 학생 독주

너무 신나요!

환호하는 학생들

퓨전국악밴드 이미지

학교소식

추수 감사 예배

지난 11월 28일, 환일고등학교 강당에서는 추수감사절을 맞아 교내 구성원 모두가 함께 풍요로움과 감사를 나누는 특별한 행사를 진행하였다. 강당 내부는 알록달록한 단풍잎 장식과 탐스러운 곡식 꾸러미, 과일 바구니 등으로 꾸며져 가을의 넉넉한 기운이 물씬 느껴졌으며, 학생들은 미리 준비한 음식과 손편지로 서로에 대한 고마움을 전하였다. 추수감사절은 원래 한해의 수확에 감사하며 이웃과 음식을 나눠먹던 서양의 전통에서 비롯된 날이다. 환일고등학교는 이 전통을 재해석하여, 단순히 농사의 결실에 머물지 않고 친구, 선생님, 가족 등 생활 속에서 소중한 이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2학년 김민재 학생은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 친구들과 우정을 더욱 돈독히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2학년 이승빈 기자

추수감사

추수감사예배 전경

김한규 목사님

선물 나눔 시간

2학년 함주안,김태이 학생의 특송

남산원, 서울역 노숙인자활센터 과일 및 기부금 전달

2025년 11월 17일, 환일고등학교는 선생님들께서 마음을 담아 모은 헌금과, 학생들이 정성껏 준비한 과일을 남산원과 서울역 노숙인자활센터에 전달하였다. 각 기관에 과일과 함께 약 30만 원의 기부금이 전달되었으며, 전달식에는 교사와 학생 대표가 직접 참여해 이웃을 향한 따뜻한 나눔의 손길을 전했다. 남산원 앞에서 진행된 전달식 현장은 모두가 환영받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학생들과 교사들의 미소와 하트 포즈로 밝은 에너지가 넘쳤으며, 나란히 선 이웃과의 연대감이 진하게 느껴졌다. 기부 물품이 알록달록하게 진열되어 작은 정성이 더 크게 빛났고, 현수막의 "방문을 환영합니다"라는 문구처럼 남산원 관계자들의 진심 어린 감사가 더해져 한층 더 따뜻한 현장이 연출되었다. 단순한 물품 전달을 넘어 직접 손을 맞잡는 만남속에서 우리 사회에 희망과 온기를 더하는 본보기가 되었다. 환일고등학교는 앞으로도 주변의 소외된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펼치며 나눔과 봉사의 전통을 이어갈 예정이다.

1학년 박시온 기자

나누고

연대하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더불어 사는 삶!

세례식

2025년 11월 17일, 경건하고 의미 깊은 세례식이 엄숙하게 진행됐다. 우리학교의 기독교 인성교육의 일환으로 매년 열리는 세례식은 신앙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고, 학생 스스로 신앙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성찰할 수 있는 중요한 행사다. 이번 세례식에는 세례를 받는 학생들의 담임선생님도 함께 참여하여 학생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 세례식은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함께, 따뜻한 격려와 축복이 넘치는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됐다. 환일고등학교는 앞으로도 학생들이 인성과 신앙을 함께 키워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종교행사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세례식을 통해 환일고 공동체 구성원들은 서로의 신앙을 격려하며 더 큰 연대감과 소속감을 다지는 소중한 시간을 보냈다.

1학년 한진우 기자

세례식 진행 모습

세례 학생들

기도하는 모습

목사님 설교말씀

세례 전 선언

학교소식

수능 결의 예배

11월 12일 오전 9시, 환일고 대강당에서 3학년 학생들의 수능을 앞두고 '2026학년도 수능 결의 예배'가 진행됐다. 예배에서는 담임목사님의 기도와 말씀을 통해 마음을 다잡는 시간이 이어졌고, 학생들은 한 해의 노력을 돌아보며 결의를 새롭게 했다. 예배 후 등굣길에서는 후배들의 힘찬 응원이 펼쳐졌다. 깃발을 흔들고 북을 치며 선배들을 격려하는 모습은 환일만의 전통적인 풍경으로, 수험생들에게 큰 힘이 되었다. 학교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가장 큰 실력"이라며 모든 3학년에게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2학년 이준용 기자

목사님 말씀

힘을내~ 환일!

교장님 격려인사

응원 선물 증정

결 의 문

안녕하세요 72대 학생회장 김주한입니다.
먼저 3년동안 가르침을 주신 모든 선생님들께 정말 감사했다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수능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일단 모두들 정말 고생했다는 말부터 하고 싶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참 많은 시간을 노력과 함께 보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아침을 이른 등교로 시작했고, 수없이 많은 시험들을 치르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멈추고 싶어도 멈추지 않았던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깁시다.

수능을 앞둔 지금 우리는 엄청난 긴장과 압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긴장보다는 기대가 좋을 것 같습니다. 수능 뒤에는 우리가 그토록 바래왔던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기대하고, 2026년을 기대합시다.

수능은 우리의 마지막이 아닙니다. 단지 앞으로 펼쳐질 꿈을 향한 수많은 과정 중 하나일 뿐입니다. 결과가 무엇이든, 우리가 쌓아온 노력과 성장까지 바뀌는 건 아닙니다. 이 과정을 멋지게 해내고 성장할 우리의 미래를 기대합시다.
지금까지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을 우리의 것으로 만듭시다. 감사합니다.

제 72대 학생회장 김 주 한

선배님들 파이팅!

마음을 담은 선물

한마음 한뜻으로

꿈은 이루어진다!

2026학년도 입학 설명회

2025년 10월 31일 오후 6시, 환일고등학교 경천관 2층에서 '2026학년도 환일고등학교 입학설명회(with 2029 대입제도 설명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설명회에는 교감선생님을 비롯해 각 부서 부장선생님들께서 참석하여 학교 교육과정과 특색 프로그램을 직접 소개하며 학부모들의 이해를 도왔다. 이날 행사장 입구에서는 안내 자료집과 학교 소개 브로슈어를 배부하며 학부모님들을 맞이했다. 학부모들은 배부된 자료를 살펴보며 학교의 교육 철학, 교과프로그램, 비교과 활동, 진로 진학 실적 등에 대해 자유롭게 질의응답을 나누었다.

이어진 설명회에서는 2026학년도 신입생 모집 요강과 더불어 2029학년도부터 적용될 대입제도 변화도 함께 안내되었다. 특히 최근 교육 환경 변화에 따른 전형 구조,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방식, 학생부 기반 평가 요소 등 학부모들이 궁금해하는 핵심 내용이 체계적으로 제시되어 큰 호응을 얻었다.

2학년 진재민 기자

교감님 인사말씀

재학생들의 학교설명 시간

경청하시는 학부모님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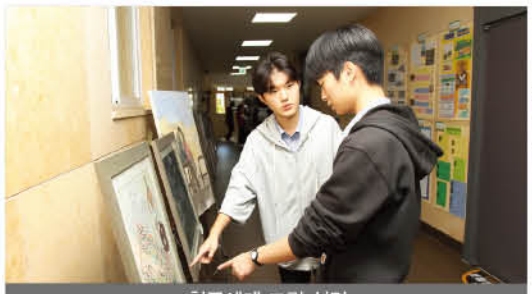
입학설명회 전경

학교소식

제27회 봉학마루제

2025년 10월 17일, 제27회 봉학마루제가 막을 올렸다. 개막식에서는 중학교 학생들의 기타연주와 고등학교 합창부의 합창 공연이 이어졌고, 커팅식과 드론 날리기가 진행되며 축제의 시작을 알렸다. 교내 여러 공간에서는 중 · 고 미술 작품 전시, 창의적 산출물 전시 등이 학생들의 참여 속에 운영되었다. 도자공예, 커피 바리스타 시험 시연, 북백 만들기, 금연 예방 홍보 등 다양한 체험형 부스도 마련되어 학생들의 관심을 끌었다. 운동장에서는 오전부터 학년별 스포츠 행사가 열려 고2는 10시부터, 고1은 11시부터 축구와 자유투 · 턱걸이 종목에 참여하며 경쟁을 펼쳤고, 오후에는 결승전이 이어졌다. 소시지, 음료, 스테이크, 닭강정, 츄러스 등 다양한 먹거리도 축제의 즐거움을 더했다. 전시 · 이벤트 · 체육 · 먹거리 활동이 다채롭게 이어진 이번 봉학마루제는 학생 · 교직원 · 학부모가 함께 만든 뜻깊은 시간으로 마무리되었다.

2학년 함수호 기자


친구에게 그림 설명

남고생들의 컵꾸

모두가 즐거운 봉학마루제

축제 즐거워요!

두근두근 축제 시작!

신나는 축하 공연

중구청장님의 방문

인기만점 츄러스

마포미래교육 페스티벌

2025년 10월 25일, 레드로드 일대에서 열린 마포미래교육페스티벌에 우리 학교 학생들이 참여해 메인 무대를 채웠다. 우리학교 합창단 학생들의 합창 공연과 1학년 학생들의 랩 공연을 선보여 큰 박수를 받았다. 특히 랩 공연을 보여준 1학년 안해진 학생과 김세원 학생은 대형 스크린과 조명 아래에서도 흔들림 없는 무대 매너를 보여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이끌었다. 이번 축제 참여는 지역사회와 연계한 의미 있는 경험이었으며, 학생들은 공연을 통해 자신들의 역량을 체감하고 더욱 성장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었다.

1학년 김성하 기자

1,2학년 문화체험

2025년 12월 10일, 우리학교 1 · 2학년 학생들은 대학로에서 창작 뮤지컬 〈썸데이〉를 관람하며 문화예술 체험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공연 예술을 직접 접하며 학생들의 문화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뮤지컬 〈썸데이〉는 뮤지션을 꿈꾸는 연수와 홀로 연수를 키워온 아빠의 이야기를 그린다. 현실적 어려움으로 좌절한 연수는 Someday 바에서 우연히 타임워프를 하게 되고, 아빠의 스무 살 시절로 이동한다. 그곳에서 아빠가 음악을 꿈꿨다는 사실을 알게 된 연수는 세대를 넘어 꿈을 지키는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된다. 학생들은 시간 여행이라는 설정과 감동적인 가족 서사에 깊이 감동하며, 공연 후 작품 속 메시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등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번 체험 활동은 학생들이 예술작품을 통해 새로운 관점을 얻는 계기가 되었다.

2학년 함주안 기자

1,2학년

너무 기대돼요!

1학년 학생들

2학년 학생들

학교소식

SW 동행 데모데이, 환일고등학교 3관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한 '2025 청소년 SW동행 데모데이'에서 환일고등학교 세 팀이 대상, 우수상, 장려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 대회에서 환일고를 대표해 출전한 학생들은 모두 AI 아이디어로 두각을 드러내, 우리학교의 창의력과 실력을 전국에 알렸다.

올해 SW동행 데모데이의 영예로운 대상은 1학년 2반 박주한, 1학년 1반 김윤수, 1학년 6반 정현준 학생으로 이뤄진 '시나브로'팀이 수상했다. 이들은 세대 간 소통 단절의 원인이 되는 신조어 문제에 집중해, 신조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해설하는 검색 플랫폼 'Slang Bridge'를 개발했다. Slang Bridge는 SNS 등에서 빠르게 생성·확산되는 신조어를 자동으로 수집해 해설을 제공, 다양한 세대가 언어 장벽 없이 소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특징이다. 시나브로팀 학생들은 "Slang Bridge가 세대 간 소통의 다리가 되길 바란다"며 수상 소감을 밝혔다.

우수상은 1학년 4반 김태윤, 김민재, 1학년 1반 김진욱 학생으로 구성된 'HI_AI'팀이 차지했다. HI_AI팀은 스마트폰에 지나치게 몰두하는 이른바 '스몸비'(스마트폰+좀비) 현상을 예방하기 위한 스마트폰 위험 감지 시스템을 개발했다. 이 시스템은 사용자의 보행 중 스마트폰 이용을 감지해 위험 상황 발생 시 경고를 제공, 스마트폰 사용에 따른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실질적 방안으로 큰 호응을 받았다.

장려상은 2학년 3반 박건희, 2학년 2반 배석준, 2학년 4반 한정원 학생의 'Lumen'팀이 수상했다. Lumen팀은 허위정보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반의 영상물 허위정보 탐지 앱을 선보였다. 이 앱은 영상 속 허위사실 가능성이 높은 콘텐츠를 분석·탐지하여 사용자에게 알리는 기능 등으로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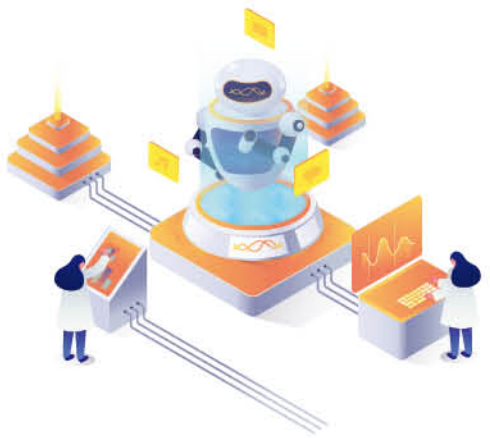
환일고 학생들은 또 한 번 뛰어난 기술력과 창의력,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깊은 고민으로 모두를 놀라게 했다. 앞으로 환일고등학교 학생들이 보여줄 더 큰 도전과 혁신이 기대된다.

2학년 배석준 기자

시나브로팀

HI_AI팀

Lumen팀



행사장 전경

준비 과정

준비 과정 2

과학실 환경개선 공사

환일고등학교의 과학 학습 환경이 한층 업그레이드되었다. 2025년 11월에 완료된 과학실 환경개선공사를 통해, 낡고 협소했던 기존 과학실이 첨단 설비와 쾌적한 공간을 갖춘 현대적인 학습실로 새롭게 단장됐다. 이번 환경개선공사는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게 실험하고, 창의적 탐구활동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새 과학실에는 대형 실험대와 환기 및 안전설비가 설치되었다. 이번 공사를 통해 환일고등학교의 학생들이 과학적 탐구심을 키우고 미래를 향한 꿈을 펼칠 수 있기를 바란다.

2학년 박정호 기자

환일길 통학로 계단 완공!

2025년 11월 14일, 환일길 73-2 통학로 계단 완공식을 가졌다.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로 올라오는 계단을 확장한 것이다. 이번 공사는 등하교 시간에 학생들이 몰리며 발생했던 혼잡과 안전사고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보다 넓고 편안한 보행 공간이 확보되어 학생들과 교직원, 학부모 모두에게 반가운 소식이다. 특히 이번 계단 확장 공사는 마포구청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가능했다. 마포구청은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학교와 긴밀히 협력해 공사 계획 수립부터 시공, 마무리까지 일련의 과정을 성실히 도왔다. 이로써 환일고 학생들은 더 넓고 안전해진 계단을 통해 혼잡 없이 원활하게 등하교할 수 있게 됐다.

2학년 김태양 기자

개통을 축하합니다!

통학로 개통식

완공된 모습

넓어진 계단

학교소식

작가와의 대화

10월 24일, 환일고 학생들이 『디지털, 잠시 멈춤』의 저자 고용석 작가와 만나는 '작가와의 대화'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사전 신청자들은 도서를 미리 배부받아 완독한 뒤 행사에 참여했고, 당일에는 질문지를 지참해 강연과 토론에 적극적으로 임했다.

고용석 작가는 디지털 과의존을 직접 경험하고 이를 극복한 사례를 바탕으로 디지털 디톡스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인물이다. 그의 저서는 세종도서 교양 부문 선정, 디지털 소사이어티 우수도서상 등 사회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강연에서 작가는 디지털 기기가 우리의 집중력과 감정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며 "멈춤은 단절이 아니라 회복의 출발점"임을 강조했다. 이어 학생들은 AI 시대의 기술 사용 방식과 디지털 생활의 균형에 대해 함께 토론하며 스스로의 사용 습관을 성찰했다.

행사 후에는 에세이 · 서평 작성, 상호 피드백, 질의응답, 사인회가 이어지며 학생들은 현역 작가에게 직접 조언을 듣는 경험을 했다. 프로그램 참여 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에도 기록될 예정으로, 학생들의 주도적 활동을 잘 보여주는 기회가 되었다.

2학년 오승민 기자

교감님 인사 말씀

작가님과 참여 학생들

작가님께 사인받기!

프로그램 진행

집중하는 학생들

원세훈 강사 명사특강

10월 22일, 환일고등학교는 56회 졸업생이자 현재 실물경제 분야에서 활동 중인 원세훈 강사를 초청해 명사특강을 진행했다. 원세훈 강사는 강연에서 경제 흐름을 이해하는 법과 실제 사례 중심의 분석 방법을 소개하며 후배들에게 넓은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를 강조했다. 또한 "지식은 연결될 때 힘이 된다"며 다양한 분야에 대한 꾸준한 관심을 당부했다.

강연 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실전 경제 공부 방법과 진로 선택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이 이어져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이번 특강은 선배의 경험을 통해 미래를 고민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

2학년 이지호 기자

원세훈 강사님과 함께

사전 발표

선배님 멋져요

질의응답시간

집중하는 학생들

박창희 강사 명사특강

11월 5일, 환일고등학교는 57회 졸업생이자 2009학년도 수능 전 과목 만점자로 알려진 박창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를 초청해 '내가 선택한 길' 특강을 진행했다. 박 교수는 수능 준비 과정에서의 공부 습관, 의대를 선택하게 된 계기, 그리고 의사로서 느끼는 책임감을 중심으로 후배들에게 삶의 방향을 스스로 결정하는 용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성공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맞는 길을 찾는 것"이라며, 진로 앞에서 조급해하지 말고 자신의 가능성을 믿어 달라고 조언했다. 이번 강연은 학생들에게 현실적인 진학 조언과 더불어 진로를 주체적으로 고민하게 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

2학년 박인주 기자

명사특강

선배님께 인사!

박창희 강사

질의응답시간

집중하는 학생들

사전 발표

학교소식

제16회 창의융합 학생특강 발표회

2025년 10월 29일 경천관 2층에서 '2025학년도 창의 · 융합 학생특강 발표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발표회는 학생들이 스스로 탐구 주제를 선정하고, 창의적 · 융합적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조사 · 연구한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참가 학생들은 인문 · 사회, 과학 · 기술,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탐구한 내용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발표하였다. 주제 선정부터 자료 수집, 연구 설계, 분석, 결론 도출까지 전 과정을 학생 주도로 수행함으로써 창의적 문제 해결력과 논리적 사고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오혜경 선생님께서는 "스스로 탐색하고 고민한 결과를 무대 위에서 발표하는 경험은 학생들의 발표 능력 향상에 크게 기여한다"며 "이번 발표회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참관 소감을 전하셨다. 이번 행사는 학생들이 자신의 역량을 확인하고 성장 가능성을 확장하는 기회가 되었으며,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학교의 교육적 의지를 다시 한 번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2학년 서정훈 기자

경천관에서 경청하는 학생들

나재승 학생 발표

박주한 학생 발표

김희찬 학생 발표

박인주 학생 발표

이선우 학생 발표

제15회 교내 토론캠프

지난 11월 7일 수학1실에서 '2025학년도 토론캠프'가 진행되었다. 이번 토론캠프는 토론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찬반 논거를 준비하고, 이를 바탕으로 토론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참가 학생들은 사전에 제시된 토론 주제에 대해 각자의 입장을 정한 뒤 자료 조사와 논리 구성 과정을 거쳐 토론에 임했다. 토론 과정에서는 상대 의견을 경청하고 반론을 제시하는 절차를 충실히 따르며, 단순한 의견 제시를 넘어 근거 중심의 사고와 표현 능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이번 캠프는 교과 수업을 넘어 학생 주도의 참여와 자율적인 준비 과정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학생들은 토론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동시에, 타인의 관점을 존중하며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태도의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었다.

2학년 문형준 기자

경천관 2층 보수공사

환일고등학교 경천관 2층이 최근 보수공사를 마치고 한층 스마트한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이번 공사를 통해 기존 노후 설비를 정비하는 한편, 스마트 스크린을 포함한 첨단 강의 지원 장비가 새롭게 설치되어 수업 및 행사 운영의 효율성이 크게 강화되었다.

스마트 스크린은 고해상도 화면과 다양한 디지털 연동 기능을 갖추고 있어 시각 자료를 직관적으로 제시할 수 있으며, 학생들도 보다 몰입도 높은 학습 경험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이번 환경 개선으로 경천관 2층은 강연, 발표회, 교내 연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스마트 교육 공간으로 자리 잡게 됐다. 환일고는 앞으로도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발맞춰 학생 중심의 학습 인프라 구축을 지속할 계획이다.

2학년 김건하 기자

소감문

제12회 창의융합 학생특강 발표회

제12회 창의융합 학생특강 발표회 소감문

2학년 박인주

이번 창의융합 학생특강 발표회를 준비하며 CT 영상이 단순한 의료 장비가 아니라, 물리와 수학이 긴밀하게 결합된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X선의 발견에서 출발해 CT가 어떻게 단면 영상을 재구성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이노그램, 역투영, 필터 보정 역투영(FBP), 반복 재구성(IR) 같은 개념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탐구하며 하나의 영상 뒤에 숨어 있는 복잡한 계산 과정을 알게 되었다. 특히 푸리에 변환을 통해 영상의 주파수 성분을 분석하고, 고주파 성분을 보정함으로써 영상이 선명해진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

발표를 준비하면서 개념을 단순히 이해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정리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그만큼 큰 성취감을 느꼈다. 실제 CT 시스템에는 더 많은 물리적 요인과 수학적 모델이 작용한다는 점에서 아직 배울 것이 많다는 것도 깨달았다.

이번 발표회를 통해 의학 기술 뒤에 숨은 수학과 과학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고, 앞으로도 이러한 융합적 관점으로 다양한 주제를 깊이 탐구해 보고 싶다는 목표를 갖게 되었다.

또한 발표 과정에서 청중의 반응을 직접 느끼며, 어려운 개념일수록 비유와 시각 자료가 중요하다는 점을 실감했다. 단순한 공식 설명보다 원리를 단계적으로 풀어 설명했을 때 이해도가 높아지는 것을 보며, 지식을 전달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고민하게 되었다. 이번 경험은 진로를 고민하는 데에도 의미 있는 계기가 되었고, 과학 · 수학적 사고를 바탕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 더 깊이 탐색해 보고 싶다는 동기를 주었다.

작가와의 대화

작가와의 대화 소감문

2학년 박희준

이번 작가와의 대화에 참여하면서 책 한 권이 독자에게 전달되기까지의 과정이 결코 단순하지 않다는 사실을 깊이 느끼게 되었다. 평소에는 완성된 작품만을 접하다 보니 이야기의 구조나 문장의 표현에만 집중해 왔는데, 작가의 설명을 들으며 한 문장, 한 장면이 수없이 많은 고민과 수정의 결과라는 점을 알게 되었다. 특히 작품 속 인물들이 어떤 계기로 탄생했는지, 그리고 그 인물들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고 싶었는지를 직접 들으며 작품을 바라보는 관점이 한층 넓어졌다.

작가는 글쓰기를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일'이 아니라 '자신이 품고 있는 질문을 끝까지 따라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말은 인상 깊었고, 문학이 단순한 감상의 대상이 아니라 사유의 결과물이라는 점을 깨닫게 했다. 또한 독자의 해석이 작가의 의도와 다를 수 있지만, 그 차이 또한 작품의 일부로 존중된다는 이야기를 통해 문학이 가진 개방성과 다양성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되었다. 작품은 작가의 손을 떠난 뒤 독자 각자의 경험과 만나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 간다는 점이 새롭게 다가왔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글을 쓰는 과정에서의 슬럼프와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다. 작가는 잘 써야 한다는 압박보다 계속 쓰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완벽하지 않은 문장이라도 남겨두는 것이 다음 글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된다고 말했다. 이 말은 글쓰기에 부담을 느끼던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표현하는 용기를 가져야겠다고 느끼게 했다.

이번 작가와의 대화는 단순한 강연을 넘어, 문학을 대하는 태도와 글을 바라보는 시각을 돌아보게 한 시간이었다. 앞으로 작품을 읽을 때 겉으로 드러난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담긴 작가의 고민과 질문을 함께 생각하며 읽고 싶다. 또한 언젠가 나 역시 나만의 질문을 글로 표현해 보고 싶다는 작은 목표를 갖게 되었고, 이번 경험은 문학과 한층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다.

SW 데모데이

SW 동행데모데이 소감문

1학년 정현준

이번 데모데이에 참가해 대상을 수상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놀랐고 기뻤습니다. 처음 접해보는 인공지능이라는 분과에서 도전을 하였고, 저에게는 기술적으로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저희 팀은 세대 간의 소통 격차를 주제로 삼았습니다. 일상에서 어른들과 대화하다 보면 신조어나 인터넷 용어 때문에 소통이 어려웠던 경우를 자주 경험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언어의 차이가 곧 이해의 단절로 이어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를 기술로 해소할 방법 고민했고, 그 결과 신조어의 뜻과 함께 신조어가 사용된 숏폼 영상을 제시하여 사용되는 맥락이나 상황까지 함께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프로그램 개발 과정은 많은 시행착오의 연속이었습니다. 처음 시도해 보는 기계학습이라는 분야에서, 어떤 모델을 사용해야 할지와 학습할 데이터는 어떻게 수집해야 할지 등 많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번의 시도 끝에 프로그램을 완성했고, 팀과 함께 문제를 다시 정의하고 예상 사용자 경험(UX)을 개선하는 과정에서는 문제 해결 능력뿐만 아니라, 소통을 고려한 개발자의 자세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데모데이 현장에서 제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긴장도 컸지만, 프로그램의 기술적 이점과 아이디어의 견고함을 최대한 전달하려 노력했습니다. 대상 수상이라는 성과는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팀과의 협동과 선생님들의 도움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프로그래밍과 AI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도 기술을 활용해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세대 간의 이해를 넓히는 개발자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이번 수상은 끝이 아니라, 더 큰 도전을 향한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토론캠프

토론캠프 소감문

1학년 채준휘

이번 토론캠프에 참여하면서 '말을 잘하는 것'보다 '생각을 깊이 하는 것'이 토론의 핵심이라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 주제에 대한 찬반 입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조사하고 근거를 정리하며, 막연한 의견이 아니라 논리로 자신의 생각을 세워야 했다. 특히 상대 팀의 주장에 대비해 반론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관점이 아니라 여러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는 사고의 필요성을 느꼈다.

실제 토론에서는 긴장도 되었지만,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며 논점을 중심으로 토론이 이루어지는 경험이 인상 깊었다. 감정적인 설득이 아니라 근거와 추론을 바탕으로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생각이 다르더라도 존중 속에서 토론이 가능하다는 점을 배웠다. 또한 즉흥적으로 제기되는 질문에 답하며 자신의 논리를 점검하고 보완하는 시간이 되었다.

이번 토론캠프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자신감을 얻었을 뿐 아니라, 타인의 주장속에서도 배울 점을 찾는 태도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 앞으로 일상적인 문제나 사회적 이슈를 접할 때에도 한쪽 입장에만 머무르기보다, 근거를 바탕으로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대화하려는 자세를 갖추고 싶다. 이번 경험은 사고력과 소통 능력을 함께 성장시킨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또한 팀원들과 토론 전략을 함께 세우는 과정에서 협력의 가치를 체감했다. 각자 조사한 자료를 공유하며 논지를 정교하게 다듬는 경험은 혼자 공부할 때와는 다른 배움이었다. 이번 캠프를 계기로 자신의 의견을 사회적 맥락 속에서 점검하는 습관을 기르게 되었고, 앞으로 수업과 다양한 활동에서도 토론에서 배운 사고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고 싶다.

소감문

가을밤 열린 음악회

개교 78주년 가을밤 열린음악회 소감문

2학년 이준용

개교 78주년 가을밤 열린음악회에서 학생 사회를 보며, 이 행사가 단순히 공연을 관람하는 자리가 아니라 학교가 걸어온 시간을 함께 기념하고 공유하는 자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시험을 앞두고 지치고 불안한 일정 속에서 참여한 행사였지만, 무대에 오르는 순간부터 그런 마음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외부 공연팀이 준비한 완성도 높은 무대들은 수준이 높았고, 음악 하나하나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 주는 느낌이었다. 잠시나마 공부와 성적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고 공연에만 집중할 수 있었던 시간이어서 더욱 소중하게 다가왔다. 학교에서 이런 수준의 공연을 직접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기뻤고, 환일고 학생이라는 사실에 자연스럽게 자부심도 느껴졌다. 음악이 울려 퍼지는 운동장에 서 있으니, 우리 학교의 오랜 역사 속 한 장면에 내가 함께 서 있다는 느낌이 들어 더욱 의미 있게 느껴졌다.

공연을 지켜보는 동안 평소에는 크게 의식하지 못했던 학교에 대한 소속감도 자연스럽게 생겼다. 친구들과 나란히 서서 같은 음악을 듣고, 박수를 치며 환호하는 순간마다 각자 다른 고민과 일상을 살아가던 우리가 이 시간만큼은 같은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시험과 과제에 쫓기며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 서서 학교라는 공간이 단순히 공부만 하는 곳이 아니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추억을 쌓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다시 돌아볼 수 있었다. 그동안 바쁘다는 이유로 지나쳤던 학교 생활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마지막 피날레에서 모두 함께 풍선을 날리고 밤하늘에 폭죽이 터지는 장면은 특히 강하게 기억에 남는다. 환호 속에서 하늘을 올려다보며, 이 순간을 같은 공간에서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큰 감동으로 다가왔다. 풍선이 하늘로 올라가고 폭죽이 터지는 장면은 가을밤의 분위기와 어우러져 오래도록 잊히지 않을 것 같다. 이번 가을밤 열린음악회는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 학교 생활의 소중함과 공동체의 의미를 다시 느끼게 해 준 뜻깊은 경험이었다. 고2 생활 중 힘들고 지칠 때마다 이 날을 떠올리면 다시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고, 남은 학교생활도 더 책임감 있고 의미 있게 보내고 싶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

봉학마루제

봉학마루제 소감문

2학년 임성근

이번 봉학마루제에 참여하면서, 고2가 된 지금 학교 축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작년과는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다. 단순히 즐기는 입장이 아니라, 축제를 함께 만들어 가는 구성원으로 참여했다는 점에서 더 의미 있게 다가왔다. 축제가 시작되기 전부터 학교 곳곳이 준비로 분주해지는 모습을 보며, 이 행사가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되었다.

나는 미술부로서 이번 봉학마루제에 작품 전시에 참여했다. 평소에는 작업실에서 조용히 그림을 그리지만, 축제 기간에는 내 작품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받는 공간에 전시된다는 점이 긴장되면서도 설레었다. 작품을 설치하고 조명을 조정하는 과정 하나하나가 쉽지는 않았지만, 완성된 전시 공간을 바라보았을 때의 뿌듯함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다. 친구들이 작품 앞에 서서 감상하고 의견을 나누는 모습을 보며, 내가 만든 결과물이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특히 인상 깊었다.

축제 당일에는 부스, 전시가 어우러지며 학교 전체가 하나의 큰 무대처럼 느껴졌다. 부스를 운영하느라 바쁜 학생들, 전시를 천천히 둘러보는 모습까지 모두 봉학마루제를 완성하는 장면처럼 보였다. 작년에는 그저 관객으로 지나쳤던 순간들이, 올해는 훨씬 더 생생하게 다가왔다.

고2가 되면서 학교 생활에 대한 책임감이 조금씩 커졌는데, 이번 축제는 그 변화를 실감하게 한 계기이기도 했다. 봉학마루제는 단순한 학교 행사가 아니라, 학생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해내며 함께 만들어 가는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미술부로서 작품을 전시하며 느낀 성취감과, 친구들과 함께 축제를 즐기며 느낀 소속감은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다. 이번 축제를 통해 학교가 공부만 하는 공간이 아니라, 각자의 재능과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느꼈다. 남은 고등학교 생활 동안에도 이런 경험들을 소중히 쌓아 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고, 봉학마루제는 고2인 나에게 학교생활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해 준 뜻깊은 축제였다.

명사특강 – 박창희 강사님

명사특강 소감문

2학년 함주안

오늘 종양내과 전문의 선배님의 명사특강을 들으며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평소 뉴스나 기사로만 접하던 암 치료의 현장을, 직접 환자를 돌보는 의사의 시선으로 들을 수 있어 생생하고 깊이 있는 통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강연에서는 암 환자 치료의 최신 의학적 접근뿐 아니라,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마음을 함께 돌보는 의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강조되었습니다. 또한 종양내과가 단순히 약물치료를 담당하는 분야가 아니라, 환자의 고통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학제 팀과 협력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도 인상 깊었습니다. 암 치료가 단순히 병을 없애는 과정이 아니라 환자와 가족이 함께 이겨내는 여정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번 특강을 통해 의사로서의 전문지식뿐 아니라, 인간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중요성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진로를 선택하든 오늘 들은 말씀처럼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진심으로 돕는 자세를 잊지 않으려 합니다.

명사특강 – 원세훈 강사님

명사특강 소감문

2학년 김제현

이번에 참석한 상업용 부동산 명사특강은 제게 매우 유익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평소 부동산, 특히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 막연한 관심은 있었지만, 실제 시장의 흐름이나 투자 전략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던 제게 이번 특강은 지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강연을 해주신 원세훈 선배님께서는 오랜 실무 경험과 깊은 통찰을 바탕으로 상업용 부동산의 현재 시장 상황, 투자 시 고려해야 할 요소들,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등에 대해 명쾌하게 설명해주셨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부분은 입지 분석의 중요성과 임대 수익률을 중심으로 한 투자 전략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이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사례를 통해 설명해주셔서 이론뿐만 아니라 실전 감각까지 배울 수 있었으며,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안목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부동산 분야에 대한 관심을 더욱 키우는 계기가 되었고, 앞으로 더 공부하고 현장을 경험해보고 싶다는 동기부여도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기회를 제공해주신 주최 측과 강연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수준 높은 강연이 지속되기를 기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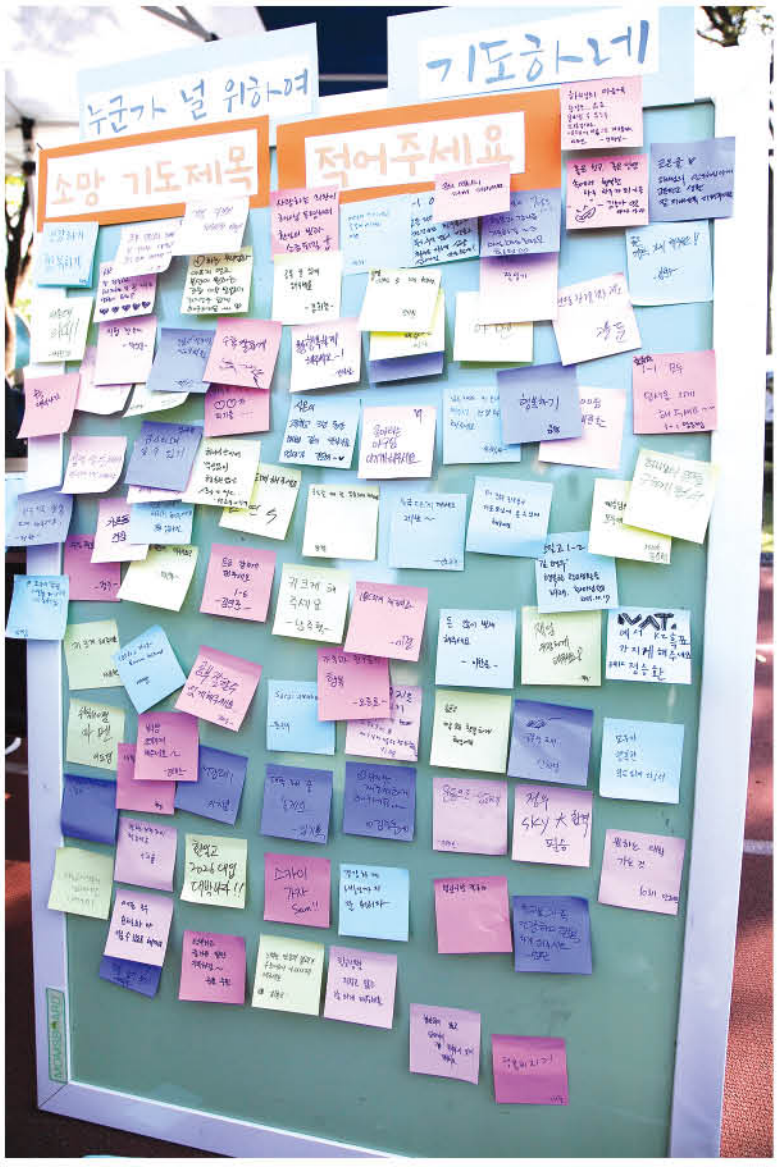
수상 및 성탄 메시지

나에게 환일고란?

재밌는 곳
기회의 공간
좋은 추억이 많은 곳
내 10대의 마지막 기억
나를 키워주는 곳
진짜 우정이라는게 뭔지 배우게 된 곳
나에게 환일고란 처음엔 낯설고 어색했지만
지금은 내 집과 다름이 없다

2025년 환일고에서의 생활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제주도 수학여행
지금 이 순간!
반대항 축구에서 골 넣을 때
체육대회 우승
입학식
한여름밤의 축구대회
담임선생님이 반 애들이랑 같이 고기 사주셨을때
스키캠프
친구들과 방과후에 축구 한 것
고등학교 1학년때 제주도로 수학여행 갔을때가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2025년 SW 동행 데모데이

대상 (팀명 시나브로)

1학년 김윤수 | 1학년 박주한 | 1학년 정현준

우수상 (팀명 HI_AI)

1학년 김민재 | 1학년 김진욱 | 1학년 김태윤

장려상 (팀명 Lumen)

2학년 박건희 | 2학년 배석준 | 2학년 한정원

주요 학사 일정

12월	1월	2월
· 12월 30일(화) 겨울 방학식 · 12월 29일(화)–12월 31일(수) 정시 원서 접수	· 1월 5일(월)–1월 16일(금) 겨울방학 방과후학교 신담임 학생, 학부모 상담 · 1월 26일(월) 개학식 · 1월 30일(금) 신입생 등록	· 2월 4일(수) 졸업식 · 2월 5일(수) 종업식